



#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은기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 공군전우회 2022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제28대 공군전우회장 및 제9대 공군발전협회장에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취임



공군전우회 중앙회는 3월23일 공군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산하/협력단체장과 임원, 중앙회 정회원, 국내 각지부/지회장과 임원, 내빈 및 수상자 가족 등 약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국민 봉사 및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군현역 2명에게 보라매상과 상금100만원씩을, 공로상, 자랑스런 공군인상,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및 공군참모총장의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이어 김성일 회장의 인사말과 회무보고가 있었으며 김영곤 감사의 감사 보고 후, 심의의결 안건으로 지난 2월 24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차기회장 추천안과 3월8일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1년도 수지 결산안”과 “2022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차기 회장(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선임안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이후 이임 김성일 회장의 이임사, 전우회기 이양, 신임 김은기 회장(예 대장, 공사 22기)의 취임사에 이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축사와 공군가 청취를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신임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쟁역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군이 ‘우주경쟁시대 최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안보단체 일원으로서 대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 및 회원 친목도모와 복지증진활동을 활성화 하고 특히, 공군발전협회 부설 항공우주력 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우리 공군인들의 소망인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공군본부에서 준비한 ‘공군 정책 소개’시청과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들은 후 만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수상자 명단
- 보라매상  
공군소령 송종원(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공군상사 이태훈(공군항공안전단), 부산광역시 지부
- 공로상  
심준택(공군학사장교회 이사), 정수일(공군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 신건영(포천시 지회장), 강상률(전 문경시 지회장)
- 자랑스런 공군인상 : 안호원(중앙회 이사), 임범택(중앙회 부회장)
-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 김혜숙, 김병숙(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 공군참모총장 감사장  
차주성(공군부사관전우회장), 최용주(인천광역시 지부장) //

## 김은기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8대 공군전우회장과 제9대 공군발전협회장으로 추천해주신 정책자문위원님과 회장으로 오신 인준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김성일 회장님은 지난 2년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전우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진력하셨으며 대내외적 활동을 통하여 회원 확대, 안정적 재정확보 및 제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셨고, 군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군발전협회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김성일 회장님의 노고와 업적에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군전우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한 전우회 회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으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고 명실공히 이제 모든 공군예비역의 대표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발전협회도 역대 회장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안보학술회의 개최, 연구논문집 발간 및 용역연구과제 등을 통해 국방안보 정책 대안 및 공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6.25전쟁 발발 후 지난 70여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해왔으며, 특히 6.25전쟁 당시 전투기 한 대 없이 연락기 20여 대로 출몰했던 우리 공군이 이제 공중급유기, 5세대 스텔스전투기 등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첨단 공군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공군인 모두의 큰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으며 불확실성 속에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안보정세는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중차대한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여섯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그 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술핵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을 뿐 아니라 금년에만 총 10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고, 올해 초에는 마하 10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되었던 각종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문제 등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 하지만 미·중간의 갈등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양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 특히 우리 공군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국내 상황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안보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심각한 형국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는 국가안보단체의 일원으로서 범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회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전쟁역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군이 우주경쟁시대 항공우주 최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우회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을 창출하도록 노력하며, 공군발전협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우리 공군인들의 소망인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우회 산하단체와 지부/지회 활성화 적극 유도 및 전우회 회원 여러분의 친목 도모와 복지향상 그리고 공군전우회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데도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김성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김은기

### 공군전우회 정책자문회의 개최



공군전우회 중앙회는 역대 참모총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를 2월 24일 11:00시 공군호텔에서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성일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무보고와 차기회장 추천심의를 있었다.

차기 전우회장 추천건에 대해서는 회의에 의거 이광학 호선의장 주관하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제30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은기(예 대장, 공사 22기) 장군을 만장일치로 차기(제28대) 전우회장 후보로 추천하였다.//

### 김홍래 제23대 공군참모총장 별세



제23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홍래 예비역 대장이 4월 5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1939년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나 1962년 공군사관학교 10기로 임관했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공군참모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어 1994년 3월 공군참모총장에 올랐다.

참모총장 재직 시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국내 면허 생산한 KF-16 작전 배치 시작과 CN-235 다목적 수송기 전력화로 공군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 같은 공로로 보국훈장 국선장과 통일장, 수교훈장 평화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전역 후에는 중앙고속 대표이사, 공사 총동창회장, 22대 공군전우회장, 3대 공군 발전협회장 및 13대 성우회장 등을 맡았다. 영결식은 4월 8일 11시에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 4시40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

### 박신규 회원, 공군전우회에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에 취임



박신규(예 중장, 공사 27기) 회원이 공군전우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으로 4월 1일 취임했다.

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공군작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및 차장을 역임하였고 전역후에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낸 바 있다.//

박 부회장은 제16

### 은헌기 군위지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은헌기(예 중령, 학사 66기, 군위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군위군협의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에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로으로서 평화통일담론 형성 및 통일 정책 제안, 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추진, 홍보 등 국민들의 평화통일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사회 활동을 통해 연구원 설립 및 안보기반 구축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받았다.//

은 지회장은 15기·19기 군위군협의회장

### 윤우 회원,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에 취임



윤우(예 소장, 공사 28기)회원이 (사)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장에 4월1일 취임했다.

정보작전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교리연습부장/전략기획부장, 공군 군수사령관 및 합참 인사부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에는 국방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초빙교수, (사)국어고전문화원 이사장 및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윤 원장은 제17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 공군전우회 회장단, F-35 전투기 동체착륙 조종사 및 비행대대 격려 방문



공군전우회 김성일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7명은 3월 2일 영공방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17전투비행단, 제317 관제대대 및 제521 방공포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위문)금을 전달했다.

과 함께한 자리에서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동체착륙을 수행한 배 소령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대한민국 공군조종사의 우수한 기량을 온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지난 1월 4일 F-35A 전투기 조종사인 배중범 소령이 서산기지서 성공적으로 동체착륙을 수행한 소속부대인 제17전투비행단 제151비행대대와 배소령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회장은 이날 격려금으로 151비행대대에 500만원, 배 소령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방문단은 인근 317방공관제대대와 521포대를 둘러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문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해당 비행대대장 및 조종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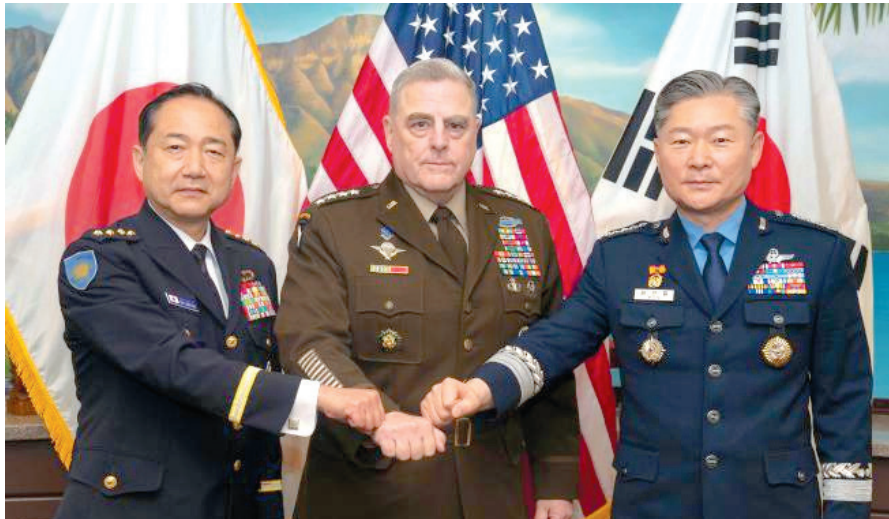
### 창원지회 드론교육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회(지회장 설병철)는 3월25일 창원무인항공교육원에서 드론교육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창원무인항공교육원 이사장과 창원지회장간 체결된 협약으로 창원지회 회원과 가족에 대한 드론교육지원과 홍보, 협력서비스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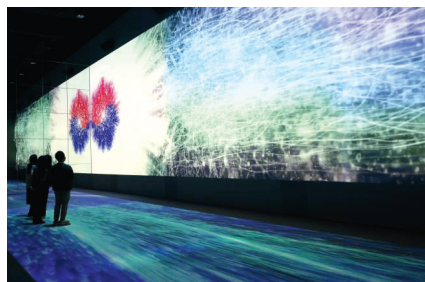
한·미·일 3개국 합참의장이 3월 31일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 원인철 의장, 미국 마크 밀리 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통함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대면으로 이뤄진 지 1년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리키 럽 주일미군사령관도 참석했다.

이들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 역내 안보 도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 3국의 긴밀한 공조·협력으로 역내 안보를 공고히 해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을 증진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다자 협력·훈련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개관

국가보훈처는 제103주년 3·1절인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했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3월 1일 공식 개관했다.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안산 자락의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연면적 9703㎡ 규모의 지상 4층, 지하 3층 건물로 건립됐다. 3개 상설전시실과 1개 특별전시실에서 1919년 3·1운동부터 현재까지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 1000여 점이 전시됐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부터 문화·교육·외교·군사·행정 등 임시정부의 분야별 주요 활동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유물과 사진·문서·영상 자료들이 전시됐다.

임정기념관이 지금까지 수집해 소장한 유물 7200여 점 중 일부와 독립기념관 등 다른 곳에서 대여한 자료들이 우선 선을 보였다. 상설전시실은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부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활동을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사람들’, ‘임시정부에서 정부로’ 등 3개의 주제로 꾸며졌다.

눈길을 끄는 소장품은 광복군의 설립과 구성, 중국과의 관계 등을 정리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보고서’와 독립군의 주요 무기 중 하나였던 ‘러시안 맥신 1910 중기관총’ 등으로, 이 두 유물은 이번에 일반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임시정부 수립의 모태인 3·1운동과 임시

임정기념관은 3월2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 서울에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센터 생긴다

서울시가 군 복무 중 다쳐 제대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계적인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3월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부상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약 2500명이다. 서울시는 ‘서해수호의 날’인 25일 마포구 공덕동 워크앤올 마포T타운점(13층)에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이하 원스톱 상담창구)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

한 전용공간이 마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덧붙였다. 원스톱 상담창구에는 전문 상담·지원 인력을 배치해 군 보상금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알려준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결과나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거나 법률적 애로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중심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심리 재활과 일자리 지원 등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 軍,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우리 군이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분야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월 30일 “ADD 종합시험장에서 서육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7월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이후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군 정찰위성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와 ADD는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 추진기관으로 고체 추진기관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성과는 과거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ADD 주도 개발에 속도가 붙은 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 설립 본격 추진

민·군 무기체계 정비인력 1만5000여 명 양성을 주도할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가칭) 설립이 본격화된다.



우리 군을 비롯해 정부부처·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설립할 이 센터에서는 무기체계 가동 향상에 필요한 정비 부문 기술혁신 연구도 이뤄져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Overhaul)에 필요한 부품·기술·인력 등 전반적인 것을 통칭한다. 국방부는 민·군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군 보유시설과 장비를 민간이 함께 활용해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월4일 “민간 일자리 창출과 군 무기체계 운용성의 획기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 MRO 산업은 무기체계 유지(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 점검

### 서울현충원 유품전시관 개선사업 완료 재개관

서울현충원은 2월17일 지난 1990년 건립된 유품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재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다시 문을 연 유품전시관은 ‘독립의 장’ ‘호국의 장’ ‘특별전시실’ 등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방문자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참여 공간과 유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공간, 연령대에 맞는 교육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실 등이 마련됐다. 특히 유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 현재 전시관이 소장한 유품 1300여 점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실’을 신설해 방문객들의

관람 여건과 유공자 유품을 소중히 보존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유품전시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 카카오톡 채널(It's 현충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켈로부대 등 6·25 비정규군·유족에 공로금 지급

6·25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 등 160명에게 총 15억7000만 원의 공로금이 지급된다.

22-2차 심의위원회는 3월 말에, 이후 월 1회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에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2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제 22-1차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상심의는 지난해 4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공로금 신청은 2023년 10월까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유족이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게시판 또는 대표 전화(02-6424-55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 접수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해 심의했다. 제

### 방사청, KF-21 보라매 전투기 '눈' 국내 최초 비행시험 착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 주사식위상배열(AESA·에이사) 레이더 독자 개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3월 4일 “KF-21 보라매 전투기 탑재용 에이사 레이더 성능을 사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시험항공기(FTB) 국내 비행시험’을 3월 중순 착수한다”며 “시험은 개발시험평가를 포함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독자 개발 중인 KF-21 탑재용 에이사 레이더를 시험항공기에 장착해 수행하는 최초의 국내 비행시험이다. 방사청은 50여 회 시험을 통해 설계 검증 및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시험은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항공기로 이뤄지며, 62개 항목을 테스트한다. 특히 공대공 모드의 탐지·추적 기능 및 성능시험, 합성개구면레이더(SAR) 영상 획득 등의 설계 검증을 수행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국외 비행시험을 완수했다.

이와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에이사



사 레이더 입증 시제를 먼저 제작 후 지속적인 시험·분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입증 시제는 에이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 송수신 처리장치 등의 국내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보된 기술을 KF-21 탑재 시제에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개념의 제품이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KF-21에 탑재해 개발·운용 시험평가를 추진한다.//

### 2만 기 규모 강원권 국립묘지 2028년 하반기 조성

2028년 하반기에 2만 기 규모의 강원권 국립묘지가 개원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근접 안장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0일 강원도와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원도청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황기철 보훈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두 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강원권에 거주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전체의 4.6%가량인 1만8000명이다.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인접한 국립이천호국원 등 타 지역 국립묘지를 이용하거나, 개인 묘지 안장으로 장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강원도 내 안장 대상 사망자 중 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된 비율은 57%여서 원거리 안장에 대한 불편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보훈처는 강원권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현충탑·현충관·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다.

보훈처는 올해 7월까지 입지선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부지 적격성 평가에 이어 10월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인허가 용역을 2024년 착수해 2025년까지 완료하고, 국립묘지 공사를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방침이다.//

### 국방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 입법예고

우리 군이 금년 4월 중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편한다.

국방부는 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될 공군미사일방어사는 전략적·작전적 공중 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 방어와 지역 방공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의 공군방공유도탄사 부대 개편 취지가 반영됐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추가 도입,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무기체계 '천궁-Ⅱ' 등 주요 전력 증강과 병행해 주요 임무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조직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입법

예고 기간은 2월17부터 3월 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은 이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2월 10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 개편과 연계해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하고, 사령관 계급을 현행 소장에서 중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등 미사일 능력 신장을 바탕으로 육군미사일전략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목적이다.

더불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와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점도 반영됐다.//

### 주한미군 용산기지 25% 올해 반환 합의

올해 안으로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1/4가량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서명을 통해 용산 주한미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 취수장 등 3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이들 3개 기지를 포함하면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예정된 미군기지 80개 중 69개 기지가 반환됐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전체 면적은 약 200만㎡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면적은 이 가운데 16만 5000㎡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게 되면, 그 면적이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1/4가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반환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 기지는 지금도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이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반환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방안을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현재까지 용산에 남아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과 잔류하는 부대의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남은 구역의 반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생계지원금 받는다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월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 전사자 등의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상한 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임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1월2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중율 상사의 부인까지 유명을 달리하면서, 남아 있는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수급 대상인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들은 25세 미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률 시행일인 25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해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는 외모 흉터 장애로 인한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여성만 포함되던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 사이에 군 생활 중 흉터를 얻은 남성들도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자 정보에 참전·훈장 추가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장자 정보에 참전 사실과 훈장 수여 내용이 추가된다. 또 11개 국립묘지별로는 업무방식을 국립대전현충원 중심으로 표준화해 안장 서비스 품격을 높인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2월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크게 △국립묘지 안장자 공적 정보 확대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 찾기 서비스 △국립묘지 관리·운영체계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보훈처는 우선 안장자의 공적을 더 자세

히 알려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를 드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자 정보에 참전 사실과 훈장 수여 내용 등을 추가한다. 대전현충원과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에 있는 28만여 명의 안장자 공적 정보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그동안 현충원·호국원 등으로 이원화된 '안장정보시스템'을 지난해 연말 통합했다.

4·19, 3·15, 5·18 등 3개 민주묘지와 제주호국원, 신암선열공원 등의 안장자 정보는 올해 말까지 추가할 예정이다.//